



“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.”

폭우를 뚫고 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,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집사님과 동수원교회가족들께 미얀마에서 사역소식과 안부를 전합니다.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며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 사랑 기억하며,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.



계속된 폭우로 집과 길이 침수되어 오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, 어린 동생들의 손을 잡고 성경공부와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대견스러웠습니다. 또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센터 사역을 묵묵히 함께해 준 치인두 선생님이 결혼하게 되어,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정을 마음 깊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. 궂은 날씨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모일 수 있음에 집사님과 동수원 교회가족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, 남은 우기 동안에도 사역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센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미얀마의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입니다.

1. 다공어린이센터 아동들이 폭우속에서도 주님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학업과 믿음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.
2. 폭우속에 피해를 입은 가정들과 집이 잠긴 쯔민칸선생님 가정이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3. 수능준비로 힘든 윤셰이힐라잉.틀렛나잉아동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,